

문화플러스

김제보건소, 지카바이러스 방역

김제시(소장 박래만)는 중남지방에서 지카바이러스의 감염증이 지속적으로 유행하고 첫 해외유입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김제시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현재는 국내 모기 활동시기에 해당되지 않아 전파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지만, 기후기온난화 영향에 따른 매개모기 변화가능성에 대비해 공공주택, 대형건물,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 등 지하집수정, 정화조, 모기서식지에 대한 모기 유충을 박멸하고 취약지등에 대한 순회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모기유충 1마리를 구제하면 모기성충 500마리 정도의 박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어, 전체 모기의 20~30%가 월동 장소로 이용하는 정화조 및 하수구 내에 해빙기 방역은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울러 '월동모기 서식지 및 위생해충 취약지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활동으로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할 것'이라며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해충피해 없는 김제시를 위해 주민들께서도 생활하는 곳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지카바이러스 매개체로 알려진 흰줄숲모기 방제를 위하여 발생원인 소정용기, 빈 화분, 나무구멍, 대나무 파인 곳, 페타이어 속, 막힌 배수로 등 해충 서식지를 사전 제거하는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부안경찰서 4대사회악근절 회의

부안경찰서(서장 강현신)는 민·경 협력치안 구축을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단 총회가 29일 부안경찰서 4층 대강당에서 지역사회 맞춤형 통합지원단(이하, 통합지원단)과 경찰 등 80명이 참석한 가운데 4대 사회악 근절을 위한 총회를 가졌다.

이날 총회는 공감치안 파트너십을 통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군민께 공감 받는 치안정책을 자리매김 하고자 민·경 한마음 지리가 마련됐다.

또 지난해 통합지원단장 취임 이후 부안경찰이 통합지원단과 함께 청소년 및 4대 사회악 피해자 지원을 위해 노력해 온 활동 모습을 영상으로 시청하였고, 향후 지원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등 뜻 깊은 시간도 가졌다.

강현신 서장은, "불법 청소년부터 4대 사회악 피해자 보호·지원까지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군민에게 공감 받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성금모금 '감사패' 수상

김제시는 전북 14개 시·군 중 우수시군으로 선정되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성금모금은 '나의기부, 가장착한 선물'라는 슬로건 아래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간 추진됐으며, 김제 전 시민과 기관·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3억 6,534만 원의 성금을 모금했다.

이에 이견식 시장은 "이웃사랑 성금모금은 시민 모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적극 동참해 이뤄낸 성과라며 '바음'은 있지만 실천하는 것이 참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동참해준 많은 분들이 있기에 행복한 김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며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제시는 공동모금회로부터 받은 1억 770만원의 사업비를 지역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사업에 쓸 예정이다.

/김제=곽노태기자



연포 강녕쉼터는 20대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연인·가족 등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서해바다 포토존, 왕벚·노티나무·아팝나무 등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됐다.

옛 두미조선소 쉼터로 재탄생

부안 변산반도 해안가에 흉물로 방치됐던 곳이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

산·돌·바다와 노을이 어우러진 변산반도 해안가에 수십 년 동안 흉물로 방치됐던 변산면 도청리 연포마을 소재 옛 두미조선소가 관광객을 위한 강녕쉼터로 재탄생해 부안 마실길과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변모했다. 옛 두미조선소는 지난 1992년 국유재산 부지를 3년 약정으로 대부 계약해 선박 건조 공장을 설립·운영하다 1995년 경영악화로 폐업된 이후 수차례 건물주가 변경 되는 과정에 사실상 흉물로 방치돼 관광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더욱이 이 곳은 부안 마실 길 코스에 포함돼 있어 마실 길 탐방에 나선

등산객들의 불안감 조성 및 안전사고 위험 주변 미관 저해, 청소년달신 우려 등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철거에 부정적 이었던 건물소유주를 찾아 삼국지 제갈공명의 삼고초려의 마음으로 온 행정력을 집중해 건물소유주를 설득하고 강녕쉼터를 조성하게 됐다. 연포 강녕쉼터는 20대 규모의 주차장과 함께 연인·가족 등이 추억을 남길 수 있는 서해바다 포토존, 왕벚·노티나무·아팝나무 등 녹지공간 등으로 조성됐다. 여기 에다 부안군은 새로 조성된 연포 강녕쉼터가 부안 마실 길 코스에

포함돼 있는 만큼 이와 연계한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했다. 연포마을 주민들은 "낡고 음산했던 건물이 강녕쉼터로 조성되니 주변 미관은 물론 마을 분위기도 한결 밝아졌다"고 즐거워했다. 부안군 관계자는 "이번 강녕쉼터 조성으로 수십 년 간 흉물로 방치돼온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휴식처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명품 관광도시 부안의 이미지에 걸맞은 위상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김제시 문화시민운동 '시작'

"정다운 이웃, 따뜻한 이웃, 인사합니다 ~" 중점 추진

화창한 봄날과 발맞추어 김제시가 밝고 명랑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인사합니다' 문화시민운동을 시작하였다.

그동안 '친절·질서·정결, 나라사랑'을 추진하여왔으나 2016년에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문화시민운동으로 내 이웃에 내가 먼저 인사하여 이웃들끼리 인사합니다 ~ "라는 슬로건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교육 및 홍보 등의 문화시민운동 확산 분위기가 퍼져 가고 있으며 이번에는 김제시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 60여명이 윤리 및 소양교육과 더불어 "내 이웃에게 인사하기" 교육도 같이 받았다. 김제시는 현대인의 대표적 거주지인 아파트가 지속적으로 증가하

고 있으나 이웃집과의 공간적 거리가 가까워진 반면 감성적 거리는 단절된 채,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현 주거문화를 좀 더 개선하고, '인사하기'란 매우 쉬운 일이지만 망설임이 보이면 한없이 어려운 일이기도 한 것을 내가 먼저 인사하여 이웃들끼리 인사합니다 ~ "라는 슬로건으로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공동주택 입주대표자 교육시 한 아파트 입주 대표자는 아이들로 인한 층간소음으로 아래층과의 사이가 결투럽고 불편한 이웃들이 많은데 이번 이러한 인사하기 운동을 통해 어르신들과, 이웃에게 만날 때마다 공손하게 인사를 드리면 감정적으로 이웃간 갈등을 해소하는데 좋은 방법인 것 같다고 적극 동참하겠다고 했다.

/김제=곽노태기자



하대성 청장은 김생기 시장을 만나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정읍, 협업강화

국도 29호선 개설 등 사업추진

하대성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이 지난 28일 정읍시를 방문했다.

이날 하 청장은 김생기 시장을 만나 ▲국도대체(국도29호선) 우회도로 개설 ▲태인~신대간(국도30호) 도로개설 ▲산외 평사리천 정비사업 등 현안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업을 강화하고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김 시장은 이 자리에서 국도 29호선 정읍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과 관련하여 "국도 29호선이 서해안고속도로 졸포C, 호남고속도로 정읍C와 직접 연결돼 고속도로 이용자들의 진출입이 크게 늘고 있는데다 고창 선운산과 부안 새만금 방항으로 교통량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농소동 주천삼거리에서 하모동까지의 도로 건설을 건의했다.

김 시장과 하 청장은 또 ▲현재 실시계획 용역 중인 태인~신대 국도30호선 시설개량공사를 동부내륙 국도개설공사와 병행하여 조기사업이 착수 될 수 있는 방안과 ▲지방하천인 산외 평사리천 정비사업의 총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며 상호 협업을 강화해나기로 했다.

특히 이후에도 지역의 현안사항에 대해 추진 단계별로 지속적으로 협력, 국가 기반사업이 지역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고 공동 노력해 나가겠다는 의견을 함께 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15만 인구 회복위한 시책발굴회의

생애맞춤형도시 등 43개 발표

올해를 '정읍인구 15만 회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정읍시가 인구 회복 시책 발굴을 위한 보고회를 가졌다.

29일 열린 보고회에는 김생기 시장을 비롯한 시청 6개 국·단·소장 및 33개 과·소장이 모두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는 정읍시 인구 현황과 주요 추진상황에 대한 총무과장의 총괄보고를 시작으로 그동안 각 과·소에서 업무와 관련해 발굴·추진 중인 총 43개의 인구 회복 시책에 대한 보고 순으로 진행 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생애 맞춤형 도시, WHO AFC 조성 ▲전략적 기업유치를 통한 인구 유입 유도 ▲귀농·귀촌 지원 강화 ▲출산장려사업 등 중장기 핵심 추진 과제에 성공추진 ▲창의적 인구 늘리기 시책 발굴을 위한 정읍발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정읍지역 초중고등학교 포터 포스터 공모전 개최 ▲관의 전입자 무료 시터부어 등이 논의됐다.

김생기 시장은 "우리는 한때 상주 인구가 28만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12만명을 밑도는 절박한 상황으로, 인구가 지역 발전의 원동력인 만큼 인구 회복 시책 추진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며 "갈수록 인구

가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정읍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구는 15만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올해를 15만 인구 회복 원년으로 정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시장은 "특히 인구 늘리기 핵심은 결국 일자리 만들기, 무엇보다 일자리 만들기에 집중하고 있다. 철도·의료산업 클러스터 조성, 전국연구개발 특구지정, 첨단과학산단지 기업유치 등이 궤도에 오르는 2018년이면 인구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한다."며 "그 때까지는 모든 공직자가 인구 유출을 최대한 막을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and Gansan Beer. It features images of wine bottles, beer bottles, and gift sets.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and '부안강산병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logos for 'Chungwa' and 'Gansan Beer'.